

<기초과정에서 초급과정으로 가는 길>

- 다양하고 복잡한 문형과 문법으로의 초대

원운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 날 1교시 수업.

약간은 긴장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던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하다. 기초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수업 분위기, 어려워진 문장들,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문법에 대한 설명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수업 시간에 지루해 하기도 한다. 10여 년 동안 초급 과정의 첫 단계 반을 맡아 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숙제였다.

처음에는 한국아이들에게 국어교육 하는 것이 뭐 어렵겠나 하고 선불리 시작했지만 이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나의 교수 방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 다음으로 잠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듯이 교수 방법을 바꿔보았지만 이 역시 옳지 않았다.

결국에는 내 아이들이 커가며 한국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려움을 같이 겪어가면서 나의 숙제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경험으로 얻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학급 운영과 교수법을 실제 수업을 모델로 나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 정숙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학급 운영 >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초급과정에 올라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과 3학년 학생일 것이다.

서서히 학교에서 장난을 많이 치기 시작하는 나이이면서 노래와 율동, 그리고 만들기와 게임 등의 활동이 많았던 기초반의 수업에 익숙한지라 자칫 정적일 수 있는 초급과정 수업에 적응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1. 반 규칙 만들기

학생들이 이 나이가 되면 정규 학교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첫 째 날 아이들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른 상벌도 결정한다.

2. 팀 나누기

대부분 수업에서 팀별 활동은 학생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특히 상벌을 줄 경우에 개인적인 것 보다는 팀별로 주는 것이 학생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하고 서로 협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전 과정 선생님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남녀 학생 비율 등도 고려하여 미리 팀을 나누어 놓는 것이 좋다.

3. 각 교시 별로 일정하게 정해지고 특성화된 학습 활동 정하기

학생들이 매 주 수업의 일정한 과정에 익숙해져서 각 활동을 예견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교시 수업 - 그 날 학습할 교과 내용의 주제 제시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끌만한 시각, 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수업에 기대감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예1) 받아쓰기

이번 주에 공부할 주요 단어를 전주에 미리 예습 숙제로 내어 1교시에 봄으로써 조용히 그 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예2) 시각 자료 이용하기

그 날에 배울 주제에 연관된 사진이나 그림,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

예3) 청각 자료 이용하기

교재나 주제에 연관된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된 장소에서 날 수 있는 소리 등을 녹음해서 들려줌으로써 그 단원의 내용을 파악한다.

<전화 하기>

* 다음의 전화하는 내용을 잘 읽고 옆의 친구와 함께 ()안에 다른 이름을 넣어 연습해 봅시다.

A : 여보세요, (어진이)네 집이죠?

B : 네, 그런데요.

A : 전 어진이 친구 (예람)인데요. (어진이) 집에 있어요?

B : 지금 없는데요.

A : 그럼, (예람이)한테서 전화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B : 네, 알겠습니다.

C : 여보세요, (원운경) 선생님 댁이죠?

선생님 계십니까?

D : 전데요. 누구십니까?

C : 안녕하세요. (김현정)이에요.

E : (한국학교)입니다. 누구 찾으십니까?

F : (안광석)씨 좀 바꿔 주세요.

E :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G : 전화 바꿨습니다.

H : 여보세요, (안어진)씨 계십니까?

K : 실례지만 몇 번에 거셨어요?

H : 거기 978-1234이지요?

K : 아닙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H : 죄송합니다.



2교시 수업 - 여러 학습 도구와 게임, 문제 풀기 등을 통하여 주요 문형과 문법을 학습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3교시 수업 - 그 날 배운 문형과 문법으로 짧은 글짓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다지기를 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활용해 보도록 한다.

*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른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또는 무엇을 안 하겠어요?
'~을 하겠어요.' 또는 '안 하겠어요.'의 문형으로 써 보세요.



* 보기와 같이 청유형으로 문장을 바꾸어 보세요.

-----<보 기>-----

학교에 일찍 **오다.**

--> 학교에 일찍 **오세요.**

(1) 한국 무용을 배우다.

(2) 책을 많이 읽다.

(3) 조용히 음악을 듣다.

- 교과 과정과 연관된 특별 활동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 문법과 문형의 쉽고 효과적인 학습 >

초급 과정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문법일 것이다. 또한 여러 문형을 배워서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문법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문법을 문법이라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받아들여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학생 시절에 영어를 공부할 때에 유난히 어렵게 배웠던 문법은 오히려 언어를 익히는데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경험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을 매 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시각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사용했던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문형 익히기

각 주에 배우는 문형은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문형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한 그 날 배울 문형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 (1) 항상 같은 색깔의 카드로 만들어 1교시부터 파켓 차트에 넣어 보여주기
- (2) 그림이나 사진의 상황을 문형을 이용해 표현하기.

2. 어형 변화 - 어간 어미 구분하기

학생들이 단어의 어미와 어간을 구분하고 어미를 바꾸는 어형변화는 처음 문법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이것도 시각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별된 색깔 카드와 파켓 차트를 이용한다.

- (1) 기본형 카드 만들기 : 매 주 배우는 동사의 기본형 카드를 같은 색깔의 종이에 만들어 나간다.
- (2) 어간과 어미의 구분 : 단어의 머리와 꼬리로 이해하도록 직접 기본형 카드를 접어 보여준다.
- (3) 변형된 어미 카드 : 여러 가지 어미를 연결할 때 규칙적인 법칙과 그 이외의 변형형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말을 하게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날의 주제에 맞게 상황극이나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1. 시장 놀이
2. 식당 놀이
3. 택시, 버스 타기
4. 파티 열기
5. 전화 놀이
6. 길 찾기
7. 요리사 놀이



<문화 교육과 특별활동>

기초과정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아직 몸을 움직이거나 공작 활동을 통해 학습하기를 원하고 이로써 오히려 수업 분위기를 전환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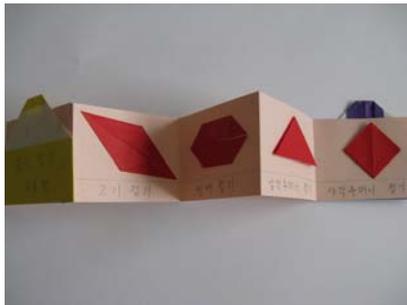
또한 고학년이 되면서 접하게 될 한국 역사 교육에 대비해서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소개한 것이 한국어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다.

만약에 한 과정에 두 반 이상이 있어서 각 교사 별로 특화된 특별활동을 맡아 격주로 돌아가면서 수업할 수 있다면 교사가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는 장점이 있다.

1. 공작 활동 - 종이 접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면서 단원 주제나 시절에 맞게 하기에 좋고 공동 작품을 만들어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예) 가족 액자, 무궁화, 기본 접기 책, 계절 풍경, 크리스마스카드, 우리 동네, 한복 접기, 어버이날 카드



2. 문화 교육

한국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 갖게 할 수 있다. 주요 명절과 풍습,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 국경일, 세종 대왕과 한글창제 전통 예술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놀이와 실습을 통해 배운다.

예) 세배하기, 깍두기 담기, 공기놀이, 국악 듣기, 제기 차기, 옛날 그림 속에서 조상들의 생활 추측하기, 거북이와 소 놀이, 강강술래와 달맞이, 전래 동화 듣기

< 깍두기 담그기 >

깍두기를 담글 때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담갔는지 다음 표에 써 보세요.

재료	
담그기	1. 2. 3.
맛과 모양	

* 각 양념 재료를 zipper bag에 하나씩 넣어 이름을 적은 후 한 학생 당 한 가지씩 골라 썬 무에 넣어 섞도록 한다. 팀별로 맛을 보고 평하는 시간을 갖는다.

* 위의 내용들은 실제 수업을 모델로, 사용된 교구와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담은 사진 등을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게시할 예정임.